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4.13 총선, 어떤 사람 찍어야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양심적인 정치인



4.13 총선 각 정당 대표들(출처: 아이뉴스)

4.13 총선이다.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하나? 그 밤에 그 나물인데...

정치에 식상한 사람들이 많다. 정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승리제단은 정치에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계시 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를 다 밀었다. 그러면 구세주께서 거론하신 분이 반드시 당선이 되었다.

지금은 다르다. 구세주께서 분신(分身)으로 움직이시는 이때는 신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말하고 찍으면 된다. 정치를 혐오하거나 무관심하다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정치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이 먼저 깨어나서 정치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것이다.

양심적이고 희생적이며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정치인을 뽑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번 짚어보자.

첫째, 양심적인 정치인을 뽑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타락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과 금력이 양심보다 우위에 있어서 돈과 힘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둘째, 국익을 최우선 하는 정치인을 뽑자. 국회의원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당파나 계파의 이익을 국익보다 위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다. 더욱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미 치광이 북한정권과 항시 대면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은가. 안보를 당의 이념이나 이익보다는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희생적인 정치인을 뽑자. 하나님의 뜻은 국조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잘 나타나 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른 정치이지 정파와 계파에 따라 싸움만 일삼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희생적인 정치인이 많아야 한다.

'한몸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는 정치인을 뽑자

승리제단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고 희생하며, 누구의 아픔을 대신 치유해 주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 진정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부처님)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승리제단의 교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기준으로 교리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저절로 새 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이다.*

세계 정치 좌락파악하는 정도령

정도령 조희성님은 보광하시기 전에 전 세계 정치를 마음대로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 증거로 노태우 씨를 13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태우 후보의 외삼촌인 노병삼 씨가 찾아와서 정도령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조카인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부탁하였다. 그때 정도령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셨다. 노병삼 씨는 조희성님이 정도령이라는 사실을 격양유록 등의 고서를 보고 알아왔으며, 정도령이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1987년도에 정도령님을 찾아왔던 것이다.

두 번째는 14대 총선(1992년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하순봉(현 경남일보 회장, 새누리당 고문)씨를 당선시켰다. 하순봉 씨는 득표율 60.68%로 전 지역에 고른 성적을 받아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조만후 현역 의원보다 조직력의 열세에 있었던 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13대 총선에서 약 8000표 차이로 석패한 아픔을 씻을 수 있었다.

하순봉 씨도 출마하기 전에 정도령 조희성님을 찾아와 당선을 부탁하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신 정도령님 그 말씀대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도령님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을 당선시켰으며, 전 세계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셨다. 손오공처럼 수십억 개 이상으로 분신(分身)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9)

“나라는 의식이 바로 죄다”

나를 의식하면서 자존심이 나온다면 교만한 생각이 나온다면 하면 무량대수의 마귀가 덮치는 고로 그 순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나 나를 이기고 자존심을 이겨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는 아직 '나'라는 주제 의식이 조종하고 있고 마귀의 영이 남아 있는 고로 마귀영인 '나'라는 의식

을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해버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내가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상달된 기도가 되는 고로,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 내가 기도하는 자 이미 자유율법을 어기는 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이다.*



영생의 진리를 빨리 퍼지게 하려면 영적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세계 최대의 종교인 기독교도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당시 기성종교인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로마시대에는 사교로 인정되어 심지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 처참하게 죽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퍼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 전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 예수가 공중에서 나타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예수인이라 깜짝 놀라 잠남이 된 후 기독교인(아나니아)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뜬 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다고 믿게 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바울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확신하여 예수의 말대로 곧 재림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예수는 자기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다니기 전에 다시 온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살았을 때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강변하면서 전파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독교는 로마시대 사교로 취급되어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바울도 여러 번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약해진 교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하여 서신을 보낸 것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동굴 속에서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려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강력한 종교가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가 빨리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으며,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 데 인간에게 구원을 줄 진짜 구세주를 만난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지경인가?

주님께서는 기독교 초창기 때보다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 숨어서 예배를 볼 필요도 없으며, 전도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우리는 사교(邪敎)도 아니다. 주님께서 무죄가 되심으로 전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히 영생의 진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 기독교에서 초창기 육적인 순교자가 많이 나옴으로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급속히 진리가 세계에 퍼질 것이다. 우리 모두 순교자가 되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5개월 만에 3지역 1등



3지역 정은경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3월 성적에 대한 시상이 지난 화요일(5일)

구역장회의에서 있었다.

3지역이 작년 10월 1등을 차지한 이래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1등의 4지역을 밀어내고 5개월 만에 1등을 차지하였다. 5지역은 식구들의 협조로 지역 2등을 유지하였으며, 4지역은 이월계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 1등은 지난달에 이어 45구역이 1등, 21구역이 2등, 38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 1등은 신순이 권사가, 개인 2등에는 김두식 승사, 개인 3등에는 정수운 승사가 차지하였다.

이번 성적은 개인 1, 2등을 5지역이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3지역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윤봉수 회장은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나와 싸워 이겨야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싸움이다. 조금씩 조금씩 연단을 통하여 탄탄해지는 것이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로 이기자. 억울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항변과 같다. 주먹으로 얻어맞

고도 '감사합니다.'로 이기신 주님을 분받아 이제는 변화가 되자. 어차피 죽어갈 인생이 육천 년 만에 나타난 구세주를 직접 만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감사하자. 봄이 오면, 여름이 가까이 오듯이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자."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2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 3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2등: 김두식 승사
- 3등: 정수운 승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증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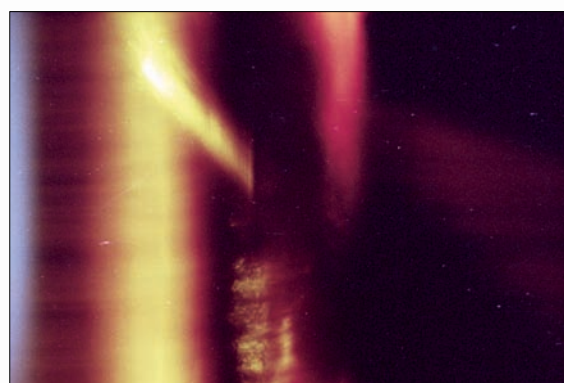
감로



2016. 1. 17 본부제단 비서실 입구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2016. 1. 17 강옥순 승사 임명식 때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2016. 1. 17 본부제단 비서실 입구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